

KISTEP 통계 브리프 2005-9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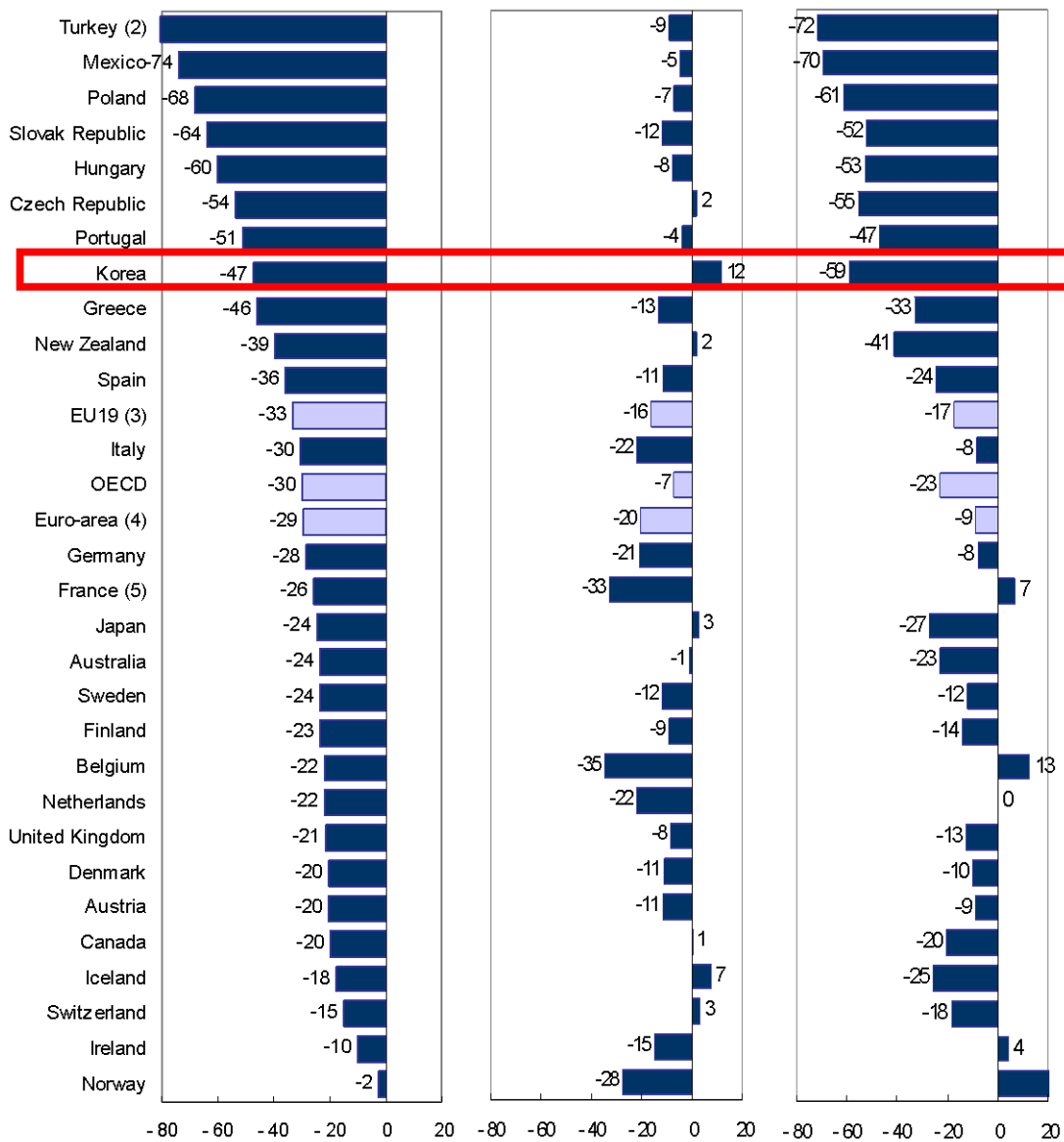
OECD 국가의 소득격차 비교 분석



□ OECD 국가의 소득격차 분석

- 우리나라와 OECD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는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원인
 - 1인당 소득수준을 노동활용도와 노동생산성으로 분해
 - $GDP/인(소득) = 노동시간/인(노동활용도) * GDP/노동시간(노동생산성)$
 - 우리나라와 미국의 1인당 GDP 격차는 47%이며 노동생산성 격차는 59%임
 - 노동활용도는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생산성은 낮은 편

<인구 1인당 GDP> <인구1인당노동시간> <노동시간당 GD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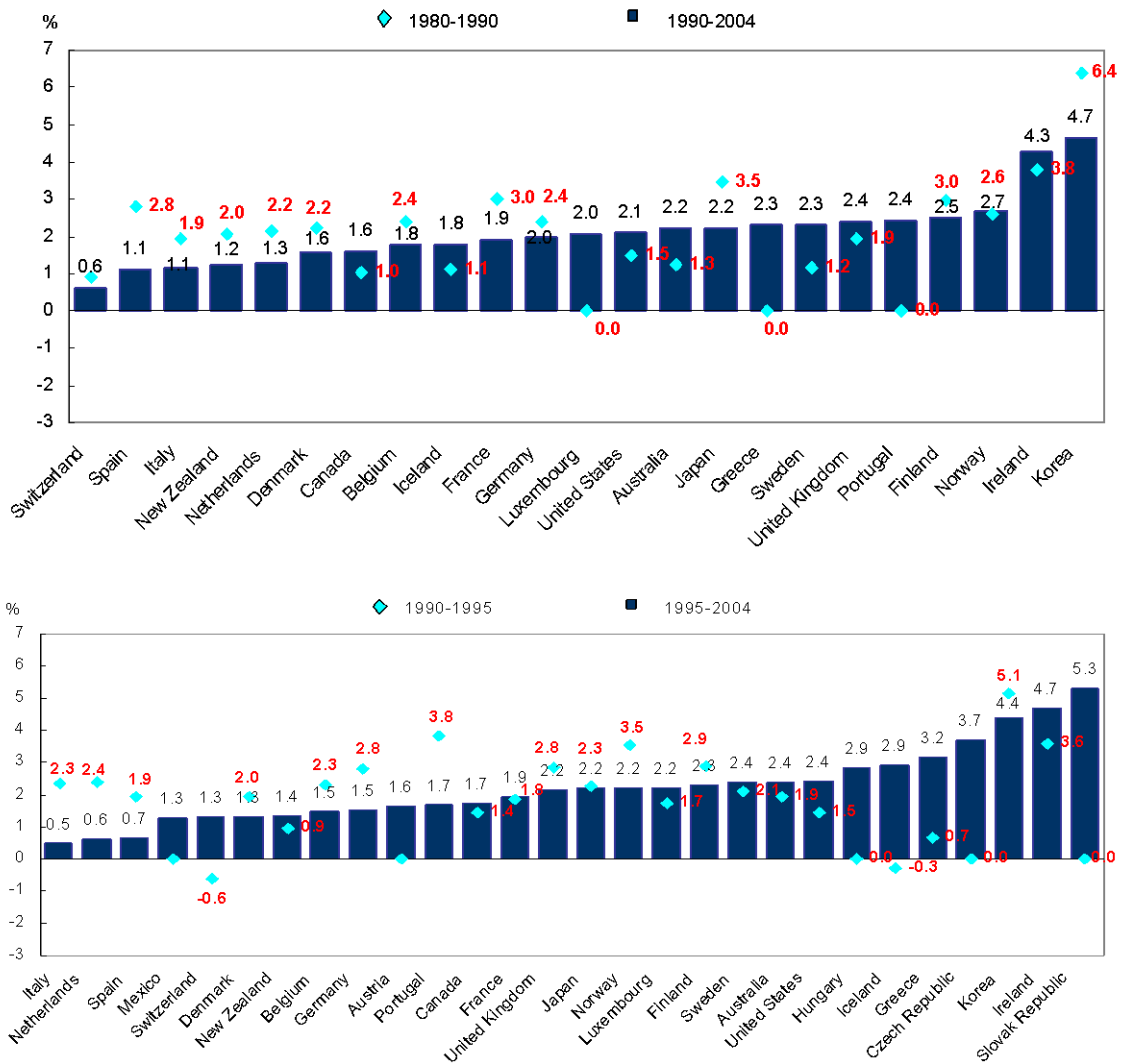


자료원 : OECD, 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, 2005

□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이

-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나, 증가율은 점차 둔화 추세
- 지난 25년 ('80-'04)간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노동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
 - '80-'90년은 6.4%, '90-'04년은 4.7% 성장
- 반면 증가율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
 - '90-'95년 5.1%, '95-'04년 4.4%로 최근 10년동안의 생산성 증가율은 둔화

<그림>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이



자료원 : OECD, 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, 2005

□ 시사점

- 노동생산성은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나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저조하여 선진경제와의 소득격차 초래
 - 노동활용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생산성이 낮아 종합적으로는 OECD 국가 중 소득수준이 낮은 편
-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급속히 제고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나, 그 증가율은 점차 둔화추세를 보여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에 어려움
- 향후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력의 공급이나 활용제고보다는 인력의 생산성 증가가 우선적인 과제

* 다음호는 “벤처기업 투자 구조 분석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

* 자료관련 문의: 기술혁신지표팀 (02-589-2829)